



3월 보건소식

《 2025 - 16 호 》

영선중학교
www.ysite.ms.kr

(우 5645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왕제산로 713

교무실: (063) 562-9704

행정실: (063) 561-0533

희망찬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1학년 학생 여러분의

입학과 2,3학년 학생 여러분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시절의 건강과 올바른

습관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됩니다. 좋은

건강습관으로 내 몸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봅시다.

몸과 마음 힘든 학생은

언제든지 보건실 문을 두드려 주세요.

보건실 이용 안내

1. 보건실 위치 : 본관 2층

2. 보건실 이용 대상: 전교생 및 전교직원

3. 보건실 개방시간: 8:10~16:40

4. 요양 절차

보건실에서 침상안정을 원하는 학생은 보건선생님의 판단 아래 담임선생님과 교과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받은 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실요양확인서 지참)

- 요양시간 1시간(병결과 처리)

- 1시간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가정안정 또는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5. 기타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응급환자 제외)

- 아픈 부위와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 약물 복용 시 미리 알려 주기

- 호흡기 증상시 보건실 입실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시행하기

- 보건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 부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실은 혼자 오기

학교 응급 절차관리 안내

※ 근거 : 교과부 『학교응급환자절차관리』 매뉴얼(2023)

「학교교육과정」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경우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며 **필요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 후송** 할 것입니다.

▶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한해서는 학교 안전공제회에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도폐쇄, 심한 호흡 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 서 치료 .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면.

▶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진료를 먼저 받도록 한다.

1. 진료결과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2. 의사 소견서 (병명과 전염여부, 등교중지기간 기록)

를 발급 받고 가정에서 요양합니다.

3. **완치 후 등교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완치되어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완치 소견서도 받아 담임 선생님께 함께 제출합니다.

● 주요 빈발 감염병

병명	초기증상	등교중지 기간
수두	발열과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인플루엔자	고열, 관절통,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옴	타미플루 약 복용을 모두 완료한 후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등교



♥교실환기를 자주 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계속 문을 닫아놓으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각종세균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됩니다. 특히, 교실은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며, 줄음이 오는 요인이 되고, 각종 부유세균에 노출위험이 증가하므로 더욱 더 실내 환기가 중요합니다.

★ 매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세요. 안된다면 적어도 오전, 오후 두 번씩 꼭 환기!! 하세요~^^*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첫째, 기침예절 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나 감정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언동,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동 등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는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도록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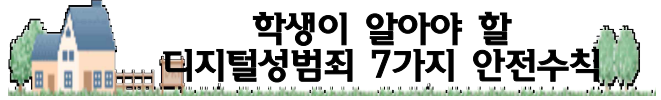
1.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자.
2.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3.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때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4.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자.
5.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자.
6. 성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소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알자.
7.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자.
8.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자.
9. 남녀 모두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알자.
10. 주변에 피해자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자.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성폭력, 성희롱등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성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 할 때

언제든지 보건실로 찾아주세요.

-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설치 : 보건실 및 상담실
- ◆ 상담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 ◆ 학교 폭력관련 전화: 117



학생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7가지 안전수칙

1.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는다.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4.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는다.
5.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협박)하지 않는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린다.
7.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결핵은 공기로 감염되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학생들은 교실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쉬운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핵(droplet nuclei: 기침이나 재채기로 결핵균이 들어 있는 입자가 공기 중에 나와 날아다니기 쉬운 형태로 된 것)에 의해 감염됩니다.

3월24일, 세계결핵의 날

이런 땐 결핵을 의심하세요!

- 기침, 가래가 2주 이상 계속될 때
- 미열이 계속될 때(특히 밤에)
- 가래에 피가 섞여 있을 때
- 입맛이 없고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할 때
-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때
- 수면 중 식은 땀을 흘릴 때
- 피를 토할 때



결핵은 치료만 제대로 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1. 결핵치료약은 반드시 결핵전문의에게 처방받는다.
2. 분량의 약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3. 진단에 따라 6~18개월 이상 임의중단 없이 복용한다.
4. 2주이상 지속되는 기침 시에는 반드시 검사한다.
5. 청결한 위생습관(양치질,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하기.

(출처:결핵관리협회, 질병관리본부)